

마리보기	2 보도 - 의과대학, 졸업 50주년 기념 기부	3 대학 -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대학 입학 취소	4 총학 - 2026 총학생회 선거 정책 설명회 개최	5 사회 - 광주 지하철 2호선 사업
------	-------------------------------	---------------------------------	----------------------------------	-------------------------

2026학년도 총학생회 선거 실시

이번 달 2일 우리 대학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선거를 실시한다. 2026학년도 총학생회 선거는 Cgnal(조민혁·박진성 학우) 후보의 단독 후보 선거로 시행되며, 단과대학 회장 선거 또한 같은 날 실시한다.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와 각 단과대학 선거 후보자는 우리 대학 선거 시행 세칙 제11장 제60조에 따라 전체 유권자 중 과반수 이상

(50%)의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또한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해야 당선에 결정된다. 더해서 세칙 12장 제 62조에 따라 전체 투표율이 50% 이상이 안 될 경우 50% 이상이 될 때까지 연장투표를 실시하며, 연장투표는 최초 투표일을 포함해 최대 15일을 넘길 수 없다.

투표 시간은 이번 달 2일 8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로 각 단과대학에서 투표할 수 있고, 학생증

이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조대신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1일 개최한 총학생회 선거 정책 설명회에서 총학생회 후보 공약에 대해 질의응답 한 내용을 이번 1174호 4면에 보도했다. 우리 대학 학우 모두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유권자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길 바란다.

정재우 기자

ekmdn@naver.com



우리 대학 학우, 외부 대회서 수상 잇따라

지난달 1일 우리 대학 차범설 학우(영어영문·1)가 제15회 총무로 단편·독립영화제 '블루리본 영화상'에서 은상을 수상하며 국내 영화계가 주목하는 신예 감독으로 떠올랐다. '블루리본 영화상'은 한국 영화의 메카인 총무로를 대표하는 단편영화제로, 선배 영화인들의 영화혼과 미래 영화학도들의 영화정신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매년 유망한 신예 감독을 발굴하고 있다.

차범설 학생의 수상작 <거울>은 2024년 광주청소년영화아카데미 제작 지원작으로, 지난해 해당

아카데미 대상을 받은 데 이어 연속으로 수상 성과를 거뒀다.

차범설 학생은 "작품은 '잊물이 많아 아랫물이 맑다'는 메시지에서 시작됐다"며, 유년 시절 부모님의 다툼을 지켜본 기억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작품이 누군가에게는 생각의 전환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공지능공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피카피카피카쥬' 팀이 한전 KDN이 주최한 제11회 2025 빛가람 에너지밸리 소프트웨어 작품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이들은 학과 산학프로젝트 강의를 통해 작품을 구체화했으며, 평소 전력 에너지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는 것에 높은 관심을 가져왔던 것이 이번 대회의 참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김성국 학우는 전국 단위의 큰 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평소 구상해 왔던 전력 에너지의 효율화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구체화할 좋은 기회였다"라고 전했다.

전국민 기자

jkmjkm0106@naver.com

CSU 진로취업페스타 '두드리면 열릴지니' 성료



▲교내에서 진행 중인 CSU 진로취업 페스타

우리 대학이 지난달 12일 청년 진로 탐색 및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 CSU 진로취업 페스타'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과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RISE 사업단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총학생회가 공동 주관했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며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였다. 프로그램은 ▲기업 상담 ZONE ▲동문 멘토링 ZONE ▲청년 고용정책 홍보 부스 ▲교내 부서 부스 ▲이벤트 ZONE 등으로 구성돼 학우들이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했다.

각 부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했을 경우 증정품과 함께 스탬프를 적립하고, 참가자들에게 적립된 스탬프와 진행된 경품 추천 이벤트로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며 학우들의 관심

과 참여율을 높였다.

행사에는 공공기관, 대기업 및 지역 중소기업 등 다수 기업이 참여해 채용·직무 정보를 제공하며 청년 인재와의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기업 관계자들과 동문들은 대학 생활, 취업 등의 부문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부스 운영위원을 맡은 한 학우는 "기존 취업 관련 축제보다 학생들이 많이 붐볐고, 부스의 참여율이 높아 매우 바빴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관련 정보를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 뿌듯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김재홍 취업학생처장은 "이번 페스타가 학생들이 진로·취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실제 취업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정인 기자

duwjddls1022@naver.com

광주경총-우리 대학, 전략 파트너십 맺었다

광주경영자총협회(이하 광주경총)와 우리 대학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들의 지역 정주를 돕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 주력산업 분야의 기업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기업의 구인난이라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통한 정주 취업을 제고 ▲산업체 네트워크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채용 연계 ▲지역 산업 수요 기반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등에 대해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광주경총 양진석 회장은 "기업은 인재가 필요하고 청년은 양질의



▲광주경총 양진석 회장(좌)과 우리 대학 김춘성 총장(우) 발대식 기념사진

의 일자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협약이 단순한 서약을 넘어 우리 지역 청년들이 광주에서 꿈을 펼치고, 기업은 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춘성 총장은 "RISE 체계의 핵심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이

라며 "광주경총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 현장에서 환영받는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지인 기자

parkjiin313@naver.com

예비 신입생 위한 ‘웰컴캠퍼스’ 개최

우리 대학은 2026학년도 입학 을 앞둔 예비 신입생과 우리 대 학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을 대 상으로 지난달 18일(화)부터 19 일(수)까지 이틀간 ‘웰컴캠퍼스 <조선 마라런: 함께하는 첫출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돼, 학생들이 본격적인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전 캠퍼스를 직 접 체험하며 소속감과 기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올해 웰컴캠퍼스는 ‘마라런 (Mararun)’이라는 주제처럼 캠퍼스를 걸어보고, 경험하고, 참여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한 입학 정보 안내 행사에서 벗어나, 예비 신입생이 대학 생활을 미리 실감할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 비중을 대폭 확대한 점 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대학의 주요 공간을 순회하며 우리 대학 의 교육 환경과 학생 지원 체계 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했다.

행사는 입학 준비와 대학 생활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이드 코스와 입학 직후 활용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 는 ▲캠퍼스 코스, 학생 참여형 미션과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플레이 코스 등 세 가지 코스로 구성됐다. 각 코스는 예비 신 입생들이 자연스럽게 학교 곳곳 을 탐방하며 우리 대학이 제공하 는 교육·복지·활동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플레이 코스에서는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캠퍼스 내 포 인트를 찾아 이동하고, 제공된 미션을 수행하며 우리 대학의 학 내 시설을 보다 생동감 있게 경 험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예비 신입생들은 학습 공간, 교내 편 의시설, 상담 및 진로 지원 시스 템 등의 정보를 단순히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몸소 확인하는 시간 을 가졌다.

우리 대학은 이번 프로그램이 예비 신입생들이 대학이라는 낯 선 공간을 미리 경험해 봄으로써 입학 전 불안을 줄이고, 대학 생 활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 움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들에게도 자신에게 맞는 교육 환 경을 비교·확인할 수 있는 기회 가 됐다.

조수민 기자
josumin0408@naver.com



▲웰컴캠퍼스 조선 마라런 포스터

의과대학, 제3회 졸업 50주년 기념 1억 5,200만 원 기부

우리 대학 의과대학 제3회 졸업생들이 졸업 50주년을 맞아 후 학 양성을 위해 1억 5,2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이는 지난 해 제2회 졸업생들의 5,500만 원 기부부에 이어 세 번째 졸업 50주년 기념 발전기금이다.

지난달 16일 개최된 ‘의과대학 제3회 졸업 50주년 기념 모교 방문 및 발전기금 기부식’에는 1975년 졸업한 제3회 졸업생 서재홍 대표를 비롯해 9명의 동문들과 전 제열 부총장, 안영준 의과대학장, 김진호 조선대병원장, 정성현 동창회장, 신병철 의과대부학장, 재 학 중인 후배 학생들 등 30여 명 이 참석해 기부의 뜻을 나눴다.

행사는 ▲환영사 및 격려사 ▲후배 학생들의 감사 인사 및 꽃다 발 전달 ▲의과대학 연혁·현황 소개 ▲졸업 50주년 회고 영상 시청 ▲기부증서·동판·감사패 전달 ▲교내·병원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전제열 부총장은 환영사를 통 해 “1975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오 신 선배님들의 발걸음은 조선대 의학 교육의 역사 그 자체”라며, “선배님들의 뜻을 잊지 않고 미래 의료 교육 체계와 연구 역량 강화



▲졸업 50주년 기념 모교 방문 및 기부식 단체사진

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영준 의과대학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선배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덕분에 다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학생 교육과 연구 환경을 강화해 지역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의료인 을 양성하겠다”고 전했다.

김진호 병원장은 “졸업 50주년을 맞아 모교를 찾아주신 선배님 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선 배님들의 헌신은 대학과 병원 발 전의 든든한 기반이 됐다”고 말했 다.

서재홍 동문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20살에 처음 교정을 밟은 뒤 반세기가 지나 모교를 다시 찾 으니 감회가 깊다”며, “이번 행사 가 작은 울림이 되어, 호남 의료인 양성의 중심인 조선대 의과대학 이 더욱 발전하고 미래 의료 인재 를 양성하는 데 디딤돌이 되길 바 란다”고 말했다.

본과 3학년 이재섭 재학생 대표 는 “선배님들께서 보여주신 나눔 은 후배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따뜻한 격려”라며 “인술을 실천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학업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기부금은 의과대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연구 역량 강화, 후 학 양성을 위한 장학금 등 의과대 학 발전 전반에 사용된다. 대학은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공헌 하는 의료 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방첨이다.

박지인 기자
parkjiin313@naver.com

지역민과 함께하는 ‘CSU 북(Book) 피크닉’ 성료

우리 대학 중앙도서관이 지난달 5일 우리 대학 대운동장에서 지역 사회와 대학 구성원이 함께한 독 서문화 축제 ‘CSU 북(Book) 피크 닉’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와 광주광역 시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새 로운 형태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으 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대학 구성 원과 지역민 등 300여 명이 참여 해, 책과 자연이 어우러진 야외 공 간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나눴다. 대운동장에 조성된 야외도서관 (Book Picnic Zone)은 빈책 소파, 캠핑 테이블, 좌식 의자, 그늘막 등 으로 꾸며져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책을 읽고 쉴 수 있는 공 간으로 운영됐다.

행사에서는 ▲야외도서관 ▲북 체험존 ▲북 큐레이션 ▲북 플리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동시 에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책을 ‘읽고, 만들고, 나누는’ 북 합작 체험을 즐겼다.

‘북 체험존’에서는 책갈피 만들 기와 한 줄 필사, 독서 인증샷 이벤 트가 진행돼 독서에 대한 참여와 흥미를 높였으며, SNS 참여 인증

이벤트를 통해 행사의 홍보 효과 를 높였다. ‘북 큐레이션’ 코너에서 는 지역 작가와 광주의 역사·문화 관련 도서를 전시해, 지역 정체성 과 문화적 연대를 되새기는 장을 마련했다. ‘인플루언서의 서재’ 코 너에서는 유명 인사들의 추천 도 서가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김춘 성 총장이 직접 선정한 도서인 지 그문트 프로이드 『꿈의 해석』,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도 함께 비치돼 참가자들의 큰 관 심을 모았다.

김춘성 총장은 “책은 인간이 자 신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 기게 하는 가장 오래된 대화의 도 구”라며, “이번 행사가 지식의 나 눔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 삶의 의미를 되 새기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북 피크닉은 도서관이 대학의 울타리 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 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확장된 의 미 있는 시도였다”며, “앞으로도 RISE 사업을 통해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문화 프로그 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ekdmdnn@naver.com

조대신문

www.chosun.ac.kr/chnews

1954년 9월 15일 창간

민족대학 건설에 이바지 / 대학언론 창달에 기여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발행인_ 총장 김춘성 / 편집인 겸 주간_ 김재홍

편집국장_ 박지인 / 인쇄인_ 박만수

주 소_ 61453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편집실_ 062-230-6162 / FAX_ 062-234-3014 / 행정실_ 062-230-6166

사 령

• 여정인(행정복지·3) 기자
• 전국민(미디어커뮤니케이션·2) 기자

이상 2명을 정기자로 임명합니다.

〈조대신문사〉

제보 및 문의 : chnews21@daum.net ☎ 230-6162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대학 입학 취소

학교폭력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학교폭력 사건은 매년 꾸준히 등장하고 있고, 학교폭력 논란으로 TV 속에서 사라진 연예인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발생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집단 따돌림, 폭행, 금품 갈취를 넘어 SNS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등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일부 대학이 학교폭력 가해자의 대학입학을 취소하며 교육 현장에 또 다른 논쟁의 중심지가 됐다. 과연 모든 학교폭력 가해자는 대학에 갈 자격이 없는 걸까?

학교 폭력 실태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피해 응답률은 2.5%로 2024년 1차 대비 0.4%p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0.9%로 줄어든 이후 5년 연속 상승한 수치다. 학교급별로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5.0%, 중학교 2.1%, 고등학교 0.7%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0%) ▲집단 따돌림(16.4%)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 순으로 조사됐으며,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전년 대비 각각 0.9%p, 0.4%p 증가했다.

또한,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은 6.3%로 전년 대비 1.4%p 증가했다. 학교 폭력 사실을 목격하면 도움을 주거나 신고하겠다는 비율은 69.4%였지만,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중 7.8%는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로 13.7%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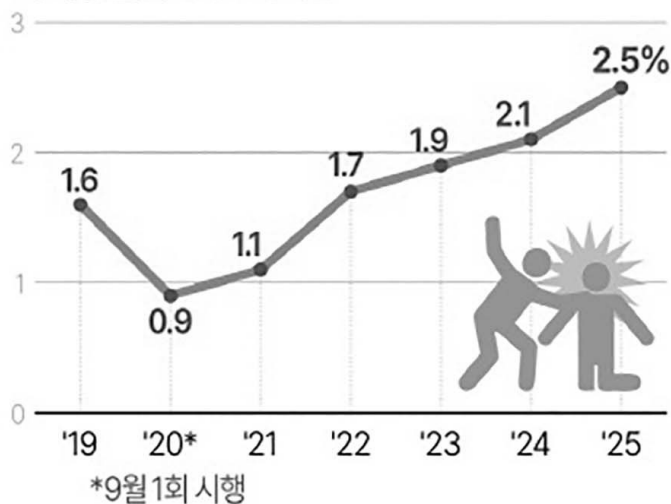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매년 4월 전수조사(1차), 9월 표본조사(2차)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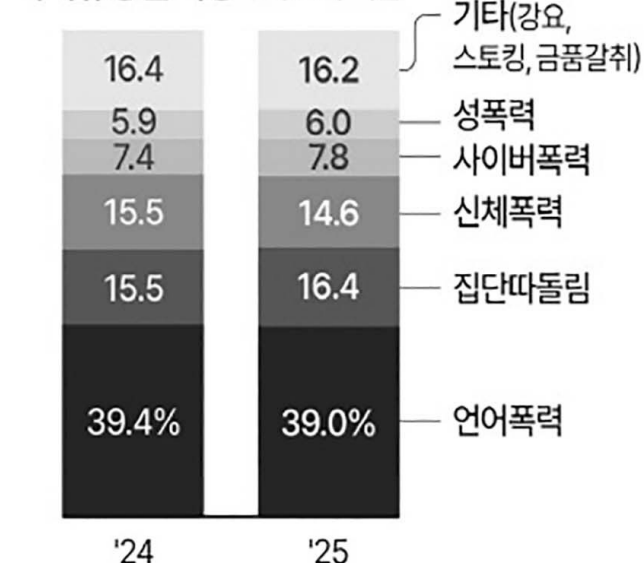
2025년 1차 조사

2025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초4~고3 재학생 397만 명 대상(326만 명 참여) 온라인 조사

피해응답률 1차조사 기준



피해유형별 비중 1차조사 기준



▲학교폭력 실태

(출처: 연합뉴스)

“소용없을 것 같아서”, 12%는 “더 온전히 신뢰받지 못함을 보여준 괴롭힘 당할까봐”라고 말했다. 이는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 체계가

학교 폭력 가해자 대학 입학 불이익

학교폭력의 징계는 수위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로 나뉜다.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숫자가 올라갈수록 징계의 수위 또한 높아진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반영 여부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했지만 지난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입시부터 모든 대학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이 의무화됐다. 학교폭력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기간 역시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대입 시기를 늦추더라도 최대한 피해 갈 수 없게 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새로 시행된 정책에 따라 우리 대학은 정시 수능·실기 실적 전형 최고 72점 감점과 학생부교과전형 최고 50점 감점을 적용한다. 이를 넘어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강원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일부 대학은 학교 폭력 이력이 있으면 아예 대학입학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

일부 대학이 학교폭력 가해자의 대학입학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며 우리 사회는 “누구에게 대학의 문을 열고 닫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됐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생상담 프로그램, 학교폭력 전문 신고 기관 117 설치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학교폭력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대책이 학교폭력 가해자 입시 취소다. 학교폭력 가해자 입시 취소는 학교폭력이 단순한 학창 시절의 실수가 아닌 미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학생들에게 가장 민감한 영역인 입시에서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모든 학교폭력 가해자는 대학에 가면 안 되는 걸까?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한다. 당사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학교폭력의 성사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하지만 학폭위의 전문성은 다소 낮은 편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에 3분의 1 이상의 학부모 위원을 규정할 뿐, 변호사나 경찰 등 법률 전문가 위원의 비율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 중 학교 폭력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 위원은 경찰 11.9%, 법조인 7.7%, 학교폭력 전문가 1.5%, 의사 0.5%였다. 많은 법조인과 교육자 또한 이 점을 지적한다.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학폭위 위원장 경험이 있는 전직 고등학교 교장은 “전문성이 없는 학부모 위원들은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호소할 경우 고의성이나 평소 관계 등 학교 폭력의 핵심 구성 요건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내려진 징계 결과가 대입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모든 가해자를 동일하게 배제하는 것이 옳은지 논란이 생기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입시 취소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별개로 학폭위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여 실질적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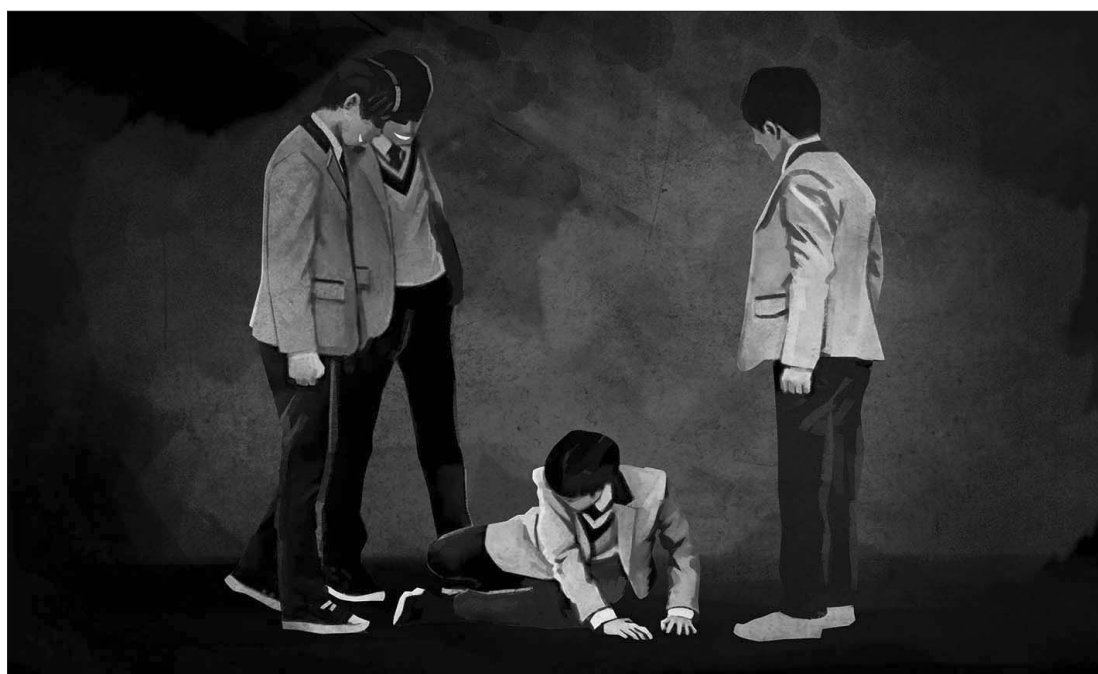
‘처벌’보다는 ‘교화’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는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은 가해 학생의 선도과 피해 학생의 보호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좋지만 가해 학생이 어떻게 반성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학교폭력 처벌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예방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 학생을 보호할 방법과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방법보다는 가해 학생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사가 처벌보다는 예방과 피해 학생의 회복, 그리고 가해 학생의 선도가 되어야 한다.

정재우 기자

ekdmdnn@naver.com



2026년도 총학생회 선거 정책 설명회 개최

지난달 21일 법사회대학 모의법정에서 2026학년도 제39대 총학생회 선거 정책 설명회가 실시됐다. 설명회는 2026학년도 총학생회 선거 단독 후보 'Cgnal'(조민혁·박진성 학우)의 정책 설명과 교내 언론사 조대신문·교육방송국의 질의응답에 이어 학우들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진로·취업 포털 구축

총학생회 후보 'Cgnal'은 진로·취업 포털 구축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취업 정보를 제공하며 ▲직무 교육 ▲비교과 ▲현장 실습에 참여할 시 직무 인증 배지를 지급해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직무 역량 인증제를 실시할 경우 실제로 인증되는 지에 대한 질문에 후보 측은 배지는 활동 기록 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연동돼 증명할 수 있으며, 덧붙여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개인 대외 활동까지 인증된 다며 덧붙였다. 추가적으로 졸업 이후 연계 가능성에 대해 묻자 향후 취업전략팀과의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 유세 중인 총학생회

총학생회 홈페이지 활성화

기존 홈페이지는 부정확한 콘텐츠와 부족한 접근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며 ▲더조아 홈페이지 ▲각 단과대학 게시판 ▲비교과 프로그램 등 정보가 흩어져있어 접근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Cgnal' 후보는 홈페이지에 캠퍼스맵, 제휴업체 및 학사일정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게시하고, SNS 링크 등으로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해 학우들의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 밝혔다.

기숙사 통금 폐지

더해서 학우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기숙사 통금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늦은 시간의 소음과 민원 대응,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설명을 요구하니 후보 측은 민원이 적은 주말과 시험기간에 시범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통행 패턴 ▲소음 민원 ▲안전사고 등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생활 패턴 기반으로 층을 구분해 부분 완화를 도모, 학우들의 만족도 확보 후 전면 폐지를 재논의하는 총 3단계의 조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AI룸메이트 매칭시스템'을 활용해 생활 패턴 충돌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학우들의 MBTI, 생활패턴 등의 정보를 분석해 패턴이 비슷한 학우들을 매칭해 더 쾌적한 기숙사 생활을 보장하려는 시스템이다.

기숙사 경비원의 휴식 시간 보장에 관한 질문에는 경비원들의 휴식 시간은 시간에 맞춰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외부인 통제 시스템은 카드키 인식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어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금 폐지를 통한 공실률 감소를 도모하며 예산 확보로 야간 경비 인력 충원의 가능성을 덧붙였다.



▲우리 대학 정문에 걸린 후보 현수막

수강 신청 철회제도 도입

기존의 OT 기간 외에 3주 차시 별도의 수강 철회 기간을 운영해 해당 기간 학생들이 수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후보 측은 원활한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에 대한 질문에 정원 재구성은 하지 않고 강좌별 최소 개설 기준 인원은 유지하되, 철회에 따른 등록금 환불 및 이월은 불가하는 등의 조건을 둘 것이라 밝혔다. 이미 철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 대학을 근거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다수 학생이 원래 듣고 싶은 강의를 수강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 철회 제도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대학이 수업 과목 분석, 강의 개선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음을 내세웠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반 확대, 강의 질 개선 등의 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대응책으로 수강 신청 TF를 신설해 학생들의 불편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합해 본부와 조정하며, 처리 과정은 SNS를 통해 투명하게 주기적으로 공개할 것이라 덧붙였다.

가을 대동제 통합 추진

기존에 각 단과대학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축제를 하나로 모아 단과대학 연합 가을 대동제로 발전시켜 새로운 정체성을 담도록 하며 비슷한 구성, 미흡한 운영의 단과대학 축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방법으로 일정 조정, 공동 프로그램, 공동 예산 지원을 통해 연합 형태로 만드는 방식으로 단과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규모 확대와 효율 증대를 도모하는 협력형 구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냉난방 시스템 개선

현재 우리 대학은 전력 피크에 대한 운영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중앙제어로 실시되고 있다. 후보 측은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교내 기준을 따르고 그 외의 시간대에는 학생 수요 조사를 통해 만족도, 희망 시간대 등을 파악해 탄력적인 운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전기 요금의 부담과 실사용자 사이의 균형을 찾아 중앙제어 시스템의 기준을 조정하고 중앙제어의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 말했다.

2024년 기준 피크 제어를 하지 않는 경우 전기세가 연간 1억 5천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러한 금전적인 면에서의 우려에 후보 측은 단순히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닌 전력 여유가 있는 구간에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캠퍼스 안심 벨 확대

캠퍼스 안심 벨 확대 설치 정책에 대해 후보 측은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것과의 차이점 ▲확대 설치의 목적 ▲기존 시스템 개선의 구체적 과정에 대해 답변을 남겼다.

캠퍼스 안심 벨은 야간 취약 구간에서 대응 속도 단축, 즉시 연결성, 위치 추적 측면에서 유용하며 안심 벨의 위치 좌표가 즉각 전송돼 신고보다 빠른 초동 대응이 가능한 단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안심 벨은 ▲학생회관과 백학 학사 이동 구간 ▲어린이집 ▲사범대 삼거리 ▲운동장 가운데 ▲체육대학 및 교내외 공터 ▲여학우 휴게실 ▲여자화장실 등에 설치되었고, 야간 통행량 대비 어두운 공간, 인적이 드물어 우려가 제기된 공간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 관제 센터를 넘어 인근 관제 센터, 인근 경찰서로 직통해 상황에 따라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히며 기존 수리가 필요한 안심 벨을 교체하고 위치는 캠퍼스맵 및 홈페이지에 명확히 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총학 정책 설명회는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총학생회 선거는 이달 2일에 이뤄진다. 선거에 이어 2026학년도 쾌적한 대학 생활을 위해서 총학생회의 공약 이행과 학우들의 꾸준한 관심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인 기자

parkjiin313@naver.com

여정인 기자

duwjdlds1022@navr.com

6년의 지연, 광주 지하철 2호선 사업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광주광역시 전역을 순환선으로 연결하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2019년 8월 첫 삽을 뜬 지 6년이 지났음에도 개통 시점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2019년 당시 광주광역시는 2023년 개통을 약속하며 ‘행복한 광주의 선택,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으나, 현재는 반복된 공사의 지연으로 시민과 상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광주광역시 전역을 잇는 순환 철도망 계획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총길이 41.8km, 총사업비 2조 1,761억 원 규모의 초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으로 1~3단계로 나눠 추진됐다. 1단계 구간은 광주시청에서 월드컵경기장을 거쳐 광주역을 잇는 약 17km 노선으로 계획됐다. 이어지는 2단계는 광주역에서 전남대·수완지구를 지나 광주시청으로 돌아오는 약 20km 구간으로, 1·2단계가 완공되면 광주 전역을 한 바퀴 도는 완전한 순환망이 완성되도록 설계됐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백운광장에서 진월·효천역으로 이어지는 약 4.8km 지선으로 계획했다. 광주시는 2019년 당시만 해도 1단계는 2023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단계 구간은 2021년 상반기 설계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며, 3단계 구간은 2021년 상반기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2호선의 초기 설계와 기대효과

초기 기대는 높았다. 2호선은 기존 지하철보다 얇은 지하 10m 이내에 건설되는 저심도로 설계돼, 고가 경전철의 도시미관 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이었다. 또 대부분의 정거장을 지하 1층에 배치해 지하 2층 이하에 승·하차 시설이 배치된 기존 지하철보다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설계했다는 것이 장점이었다. 차량은 곡선 주행에 유리하고 소음이 덜 나는 고무차륜 경전철(K-AGT)을 선택했고, 무인운전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이 도입되며 미래형 도시철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에서 밝힌 2호선의 역할은 기존 도심과 첨단·수완·하남지구 등 신도시 확장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기대하며 기존 도심과 신도시의 교통망 연계를 기대했다. 또한, 도시공간구조 및 개발축의 변화에 부응하는 도시철도망 구축을 기대하며 도시 다핵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효과를 내세웠다. 기존 1호선의 동서축과 효천·첨단을 잇는 남북축을 연계한 도시철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남북축 노선 기능을 기대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23년 발표한 자료에서도 2호선의 기대 효과는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2호선 개통 시 주요 생활권이 30분 이내에 연결되고, 도시철도 수혜 인구가 17%에서 71%로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미세먼지·열섬현상 완화 등 환경 개선 효과와 함께 ▲연간 1,800억 원의 교통 혼잡비용 절감 ▲ 시내버스 재정지원 81억 원 감소 ▲ 무료 환승 및 무임승차 편익 연 300억 원 증가 등 경제 효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2019년)

(출처: 국토교통부)



▲동구 필문대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립 공사

(출처: 광주일보)

과도 예상했다.

연속된 악재 속 공정 지연 심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사업은 여러 변수로 공정에 차질을 빚었다. 당초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했던 공사는 수차례 지연되면서 2024년 말로 미뤄졌고, 또다시 2026년 말로 미뤄졌다. 광주광역시는 ▲대규모 암반 발진 ▲집중호우 ▲상수도관 파열 ▲전력선 안정화 지연 등이 지연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체 공구 중 2공구(운천저수지~월드컵경기장)는 공정 지연의 핵심 지점으로

지목된다. 이곳에서 거대한 암반층이 드러나는 바람에 굴착 작업이 장기간 중단됐고, 7~8월 폭우로 공사 현장이 침수되기도 했다. 앞서 설명한 상수도관 파열과 고압 전력선 안정화 지연 문제까지 겹치며 공사는 수개월 동안 멈춰 섰다. 이러한 영향으로 10월 말 기준 1단계 전체 도로 개방률이 평균 63%인 데 비해 2공구는 34%에 그쳤다.

지연 장기화, 상인 피해 대책 시급

지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상인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개통 시점조차 알 수 없는 사업에 지역사회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떠안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호지구를 비롯한 주요 공사 구간 상인들은 수년간 이어진 도로 통제와 공사 펜스 설치로 차량·보행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며 매출 급감의 직격탄을 맞았다. 상인들은 “공사를 감내한 것은 시의 일정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예측 실패로 인한 지연 피해를 민간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이 적지 않고, 임시 주차 공간 확보나 상권 접근권 회복 등 기본적 지원책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 개통 시점 공개 요구 쏟아져

이러한 상황에 광주시의회에서도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1일 열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공정표상 완공 시점이 있을 것 아니냐, 정확한 날짜는 아니더라도 계획은 있을 것 아니냐”며 “2027년 개통한다든지 계획을 말해달라”고 개통 시점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저희 말 한마디가 책임이 크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강수훈 시의원은 “하루 이틀의 지지도 아니고, 오늘까지 이렇게 답변하시면 행정에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 있느냐”라며 “시민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오 본부장은 “공정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어 늦어지고 있다”며 개통 시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해명했다.

1단계 ‘2027년’ 개통, 공정 재조정

이에 광주광역시시는 지난달 19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에 대한 공정을 전면 재조정된 끝에 2026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약 1년간의 시운전 절차를 거쳐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공정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광주시청에서 광주역을 잇는 1단계 구간의 토목공사 공정률은 92~99% 수준까지 진행된 상태이며, 남은 ▲전기 ▲통신 ▲신호 ▲선로 설치 등 주요 시스템 구축 작업은 내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는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완 사항 중심의 공사가 이어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다림의 끝은 언제인가

착공 6년이 지난 지금,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기대보다 불편을 더 크게 체감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된 일정 연기와 정보 부족으로 행정 신뢰도 하락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다. 도대체 언제 2호선을 탈 수 있는 것인가. 광주광역시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예정이 아닌 확정이며, 추상적 약속이 아닌 실행 가능한 계획이다. 2호선이 더 이상 지연의 상징이 아니라 도시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신뢰 회복과 투명한 공정 공개, 그리고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할 것이다.

전국민 기자

jkjkm0106@naver.com

교수칼럼

인생은 주어진 환경이 아닌 그것에 대한 자신의 반응에 달려있다

1948년 제정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말하는 건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라, 신체적(physical), 정신적(mental) 및 사회적(social)으로 완전한 안녕한 상태(웰빙 well-being)이다. 1998년에는 위 세가지 요소에 영적(spiritual) 건강이 들어갔지만, WHO 헌장에 필수로 명시되지는 아니하였다. WHO에서 말하는 건강 개념은 인간의 전인적인(wholistic) 모든 영역에서 안녕해야(well-being), 온전히 건강하다는 의미이다.

질병은 몸의 질서가 깨진 상태이다.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오게 될 때,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야 잃었던 건강도 되찾을 수 있다. 건강의 선천적인 영역도 있지만, 후천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후천적 습관, 특히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로 프랑스의 천재 학자 파스칼의 명언이 있다. '습관은 제 2의 천성(天性)으로 제 1의 천성을 파괴한다(Habit

is a second nature that destroys the first)'고 했는데, 후천적인 습관이 선천적인 천성보다 더 중요해 파괴까지 한다는 뜻이다. 학습이라는 반복된 과정을 통하여 뇌에 습관회로(habit circuits)가 형성되고 이것이 행동패턴으로 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규명되었다. 이 파스칼의 명언을 건강과 관련시켜 보면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본다.

가족력이 작용하는 유전 질환인 경우, 선천적 요인 외에도 후천적인 영향도 크게 받는다(물론, 가족력 질병 중 유전적 아닌 오직 후천적 생활습관에 의한 것도 있다). 이때 가족력 질병 유전자가 실제 질병으로 발현되는 것은 후천적 환경에 의해 좌우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후성유전학 분야는 생명과학에서 최근 주목받는 학문분야이다. 비록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질병이 생기는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는 것은 생활습관같은 외부 후천적 요인에 달려있어, 일찍 발현될 수도 있고 늦게 발



이원재 교수
(약학대학 약학과)

현될 수도 있다. 이는 과학적으로 놀라운 사실이고, 실제적 삶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내용이다.

후성유전학자들은 비유적으로 <총을 장전하는 것은 유전자이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환경>이라고 말한다. 후천적 환경이 선천적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영양과 생활습관을 개선함으로 대표적 후성유전 질환인 암, 그리고 당뇨, 치매, 심혈관 질병 등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이름 황성주 생식'을 개발한 황성주 박사의 <생식이 유전자를 바꾼다>라는 책도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인생의 지혜는 "인생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attitude)에 달려 있다"라는 내용이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은 재능, 능력, 환경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일부 맞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삶에 대한 태도와 해석에 따라 인생은 놀랍게 달라진다. 시청각과 언어의 삼중장애를 가졌지만 5개 언어를 구사하는 헬렌 켈러, '사지가 없는 기형 인생'이지만 NGO 희망 전도사인 닉 부이치치, 만취한 음주 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의 중화상으로 40번 안면 대수술을 한 이지선 교수, 모두 삶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장애를 가진 한마디로 망한 인생 그 자체였다. 그러나 자기 환경에 대한 태도(attitude)가 달랐고 해석이 달랐다. 그렇기에,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만은 아니다. 척박한 환경은 그 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뿐이다.

찰스 스윈돌 교육가는 '인생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10%와 그

것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 90%이다'라고 말한다. 외부 환경은 늘 상대적으로 변화무쌍하고, 누구나 예외없이 원치 않는 환경과 상황을 만난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 자체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상당한 영향은 주겠지만), 환경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자신의 반응이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 실제 세상에 빛을 남긴 위인들은 자신 삶과 시대의 역경 속에서 이를 극복하며 세상에 빛을 비추어 왔다. 영국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 역사를 '도전과 응전(Challenge and response)'으로 해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다. "외적인 위기의 도전(challenge)에 대해 문명의 주체자는 어떻게 반응(response)하는가?" 이것이 핵심이다.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은 인류 문명사뿐 아니라 개인 삶의 역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깊은 통찰이다. 비록 주어진 삶이 척박할찌라도 희망을 가지고 개척하여 멋진 인생의 작품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서석대

낙엽이 떨어져도 인생은 계속된다

가을 캠퍼스의 풍경은 유난히 정적하다. 나무는 잎을 붙잡지 않고, 낙엽은 자신의 무게만큼 떨어진다. 수북이 쌓인 낙엽을 밟는 발걸음 사이로 바스락거리며 흩어지는 소리는 그동안 바쁘게 달려오느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속도와 방향을 돌아보게 한다. 대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시간이 어느덧 끝을 향해 흐를수록, 이 단순한 자연의 변화는 묘한 울림을 남긴다.

대학은 분명 우리에게 꿈을 말할 자유와 선택의 시간을 준다. 그러나 졸업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갈수록 그 자유가 책임으로 바뀌고, 선택은 결과를 요구한다. 첫 이력서를 쓰며 자기 경력을 조심스레 나열하고, 첫 면접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순간, 우리는 '사회 초년생'이라는 새로운 계절의 초입에 서게 된다.

문제는 이 처음이 생각보다 무겁다는 것이다. 실패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남들과 비교되는 현실,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알 수 없는 불안.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들며 청춘을 흔들어 놓는다. 마치 갑작스러운 바람에 가지가 크게 흔들리지만,



조수민 기자
josumin0408@naver.com

결국 잎은 떨어질 시기가 되어야만 바닥에 내려앉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부정적인 신호만은 아니다. 흔들림은 방향을 만들어주고, 두려움은 과정을 준비하게 만든다. 떨어지는 낙엽이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해의 생장을 위한 정리이듯, 청춘이 겪는 좌절과 불안도 결국 성장의 한 과정일 뿐이다.

청춘의 속도는 모두 다르다. 누군가는 빠르게 진로를 정하고 뛰어가지만, 누군가는 오래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다. 중요한 건 늦고 빠름이 아니라 자신의 속도에 귀를 기울이는 용기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준비해 온 시험에 떨어지고, 연속된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고, 기대했던 자리가 내 것이 아님을 확인할 때. 그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멈춰 선다.

하지만 멈춤은 실패가 아닌 '전환'의 과정이다. 낙엽은 떨어져도, 인생은 계속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속되는 이야기 한 가운데에서 여전히 자라고 있다.

청년의 담(談)

비난을 넘어 이해로

최근 SNS에서 새로운 세대 구분 용어가 확산되고 있다. 바로 '영포티(Young Forty)'다. 용어가 처음 등장한 2015년 당시, 영포티는 자신을 위해 소비하고 감각적으로 삶을 꾸리는 40대를 가리키며 긍정적인 자기관리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젊은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이에 얽매이지 않는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능동적인 중년의 모습이 핵심이었다.

현재 온라인에서 영포티는 과도하게 젊어 보이려는 중년층, 청년 세대의 취향이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스스로를 젊다고 착각하는 중년을 풍자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부정적 뉘앙스가 더해지며 영포티는 최근 세대 갈등을 상징하는 새로운 키워드로 여겨진다.

최근 '영포티의 전형적인 모습'의 이미지가 온라인에서 크게 확산되기도 했다. 이미 지 속 영포티는 볼캡 모자,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티셔츠, 검정 크로스백, 최신형 오픈지색 아이폰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됐다.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다소 과장된 패션 코드가 조롱의 대상으로 보이며, 영포티는 일종의 밈으로 고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민 기자
jkmjkm0106@naver.com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패션을 둘러싼 세대 간 취향 차이에 그치지 않는다.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오해와 기대의 충돌이 드러나는 결과다. 젊은 세대의 거부감은 단순히 '중년이 젊음을 흉내 낸다'는 외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난 같은 현실은 외면한 채 멋대로 MZ세대라 규정짓던 중년층이 이제

는 영포티라는 용어로 재단되는 상황을 보며, 그간의 일방적인 소통과 모순적 태도에 반격을 가하는 것에 가깝다. 반면 중년층은 이에 억울함을 느끼기도 한다.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노력과 소통을 위한 시도조차 그저 부정적인 밈으로만 소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영포티 논쟁이 단순한 조롱이나 밈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의 시각을 조금씩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 세대는 중년 세대가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중년 세대 역시 청년들이 처한 현실과 감수성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요구된다. 세대 간 취향과 가치관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서로의 모습을 가볍게 희화화하기보다 각 세대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설

전환의 시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

1954년 창간된 조대신문은 당시 광주, 전남권 사립대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정규 학보 체계를 갖춘 대학 언론이었다. 우리 대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장 오래도록 지켜온 70년짜리 아카이브이자, 대학 구성원들의 생각을 모아온 공론의 장이었다. '대학다운 대학 만들기'라는 가치를 걸고 시작된 창간호는 '학문의 전당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첫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 선언은 세대를 건너 이어져 온 조대신문의 정신이 되었고, 그 정신은 캠퍼스의 굵직한 사건들을 기록하며 더욱 단단해졌다. 대학의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시기에도 조대신문은 필요했던 질문을 던졌고, 민주화의 바람이 캠퍼스를 지나가던 시기에는 비판과 성찰의 목소리를 담아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했다.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확장되던 때에는 대학 언론으로서의 시각을 바탕으로 지역의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창이 되었다.

조대신문의 역사에는 수많은 전환점이 존재한다. 학내 의사소통 체계가 미비해 혼

란이 잦았던 시절, 조대신문의 기사는 때로는 정책 결정의 기반이 되었고, 때로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도 조대신문은 사실에 대한 집요한 탐구를 멈추지 않으며 대학 언론의 책임을 지켜냈다. 이는 결코 자연스럽게 주어진 성과가 아니라, 세대를 거쳐 이어진 기자들과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신념을 지켜온 결과이다. 무엇보다 조대신문은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사회를 향한 성찰과 비판이 살아 있는 공간임을 증명해 왔다.

오늘날 대학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정보의 흐름은 종이에서 디지털로 이동했고, 학생들의 구조도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 언론에 새로운 과제를 요구한다. 단순한 보도나 정보의 전달을 넘어서, 다양해진 구성원의 목소리를 어떻게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빠르게 소비되는 정보 속에서 어떻게 신뢰할 만한 지성의 플랫폼으로 남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그것이다. 조대신문이 다시금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정립해야 하는 시점이 여기에 있다.

교육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학제 간 장벽 해소, 전공 융합, 인구 감소, AI 기반 교육은 이제 일상적 담론이 되었으며, 정부 역시 대학혁신지원사업, 글로벌30사업, RISE 사업 등 대규모 정책을 통해 대학의 전면적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조대신문이 민주화의 격랑 속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나침반 역할을 해왔듯, 이제는 급변하는 시대의 학생들에게 대학 생활과 진로를 바라볼 수 있는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할 때다.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긴 역사 속에서 조대신문은 언제나 시대적 요구에 맞게 스스로를 재정비해 왔다.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의 실험, 대학 구성원과의 상호작

용 강화, 학내 의제에 대한 심층 분석 등은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방향이다. 동시에 어떤 변화 속에서도 지켜야 할 가치는 분명하다. 공정성, 정확성, 공익성, 그리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목소리. 이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한 조대신문의 위상은 언제나 존중받을 것이다.

이제 조대신문은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조대신문의 뿌리는 깊고, 그 전통은 견고하다. 70여 년 동안 이어온 학보의 정신은 앞으로도 다양한 구성원들에 의해 계승되고 확장될 것이다. 조대신문이 대학사회의 변화를 기록하는 동시에, 그 변화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지성의 플랫폼으로 계속 자리하길 기대한다. 조대신문의 역사는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다음 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쓰이고 있다.

데스크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취재가 시작되자'는 개인이나 기업, 정부 등이 언론의 취재나 보도가 시작되면 그때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거나 대응한다는 뜻으로 인터넷에서 시작된 유행어다. 네티즌들은 이를 '마법의 단어'로 칭하며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자 쟁쟁게 태도를 바꾸는 행위를 조롱함과 동시에 언론의 영향력을 표현한다.

실제로 취재가 시작되자 급히 대응한 사례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2023년 원주시에서는 수도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민원을 1년간 대처하지 않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무려 80분 만에 원인을 파악했고,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앞 인도에 단차가 있어 시민들이 넘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경계석을 기준으로 왼쪽은 구청 소유의 땅, 오른쪽은 아파트 소유 땅이라는 이유로 서로 합부로 손볼 수 없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취재가 시작되자 구청과 아파트 시공사가 이른 시일 내에 해당 인도를 보수하겠다고 답했다.



박 지 인 편집국장
parkjiin313@naver.com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해결되지 않던 일들에 언론이 움직이면 순식간에 잘못을 인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곤 한다. 보통 대중의 관심이 몰릴수록 공권력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언론을 비롯한 온갖 매체에서 다뤄지게 되면서 이미지 훼손이나 책임, 경제적 손해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곧장 대처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사건·사고를 쉬쉬하며 감추다가 언론의 취재로 공론화되면서 일어나는 파장은 두려워한다.

지난 4월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언론보도가 증가하자 중대재해 발생이 줄었다"라고 밝히며 이에 상관관계를 증명하기도 했다.

세상에 밝혀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숨기려는 행위가 쓸쓸하기도 하지만, 사실 취재가 시작돼도 꿈쩍도 안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다. 과거에 비해 언론의 힘은 약해졌지만 아직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다행스럽다. 그만큼 언론인이 짊어진 책임은 여전히 무겁다는 점을 새삼 체감한다.

여러 언론사에서는 '취재가 시작되자'를 주로 후속기사를 보도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으며, 채널 A의 경우 지난해 '취재가 시작되자' 홈페이지를 개설해 사건과 사연을 직접 제보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오픈하기도 했다.

가급적 취재가 시작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파다하기에 더더욱 시민들의 많은 제보와 관심이 중요하다. 조대신문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대학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과 학우들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학우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여기고, 더 나은 우리를 위해 조대신문이 함께 하겠다고 다시금 약속한다.

조대신문

조대신문과 함께 나아갈 {기자}를 찾습니다!

조대신문과 함께 성장을 이루어가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사항 #chnews21(인스타그램) #chnews21@daum

모집기간	2025.12.01(월) ~ 2025.12.19(금)
모집대상	2026학년도 기준, 1년 이상 활동 가능한 우리 대학 1~3학년 재학생(휴학생·졸업생 제외)
모집분야	분야: 대학, 사회, 문화
활동	활동: 매달 정기적인 신문 발행(방학기간 제외)
혜택	매달 취재 장학금 및 원고료 지급
선발과정	선발과정: 신청서 서류 평가 -> 면접평가 (날짜 개별 안내) 후 합격 통보 및 활동안내

신청방법: 조대신문 홈페이지
(<https://www3.chosun.ac.kr/chnews/index.do>) 공지사항
해당 지원서를 내려받은 후, 작성해서 chnews21@daum.net으로 제출

사회문화

광주의 김장 물결, '김치의 세계화'로

매년 '김장철'이 오면 대한민국 전 지역은 김장 준비로 들쭉인다. 특히 김치가 한국인의 밥상에 그치지 않고 해외로 퍼져나가며 '김치의 세계화'가 이뤄지고 있다.

2020년 '김장철'인 11월 22일이 '김치의 날'로 지정됐다. 김치의 다양한 재료 하나 하나(11월)가 모여 면역 증강, 항산화, 항비만, 항암 등 22가지(22일) 이상의 효능을 만들어낸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 대한민국 법정기념일 중 특정 음식이 기념일의 주인공이 된 경우는 최초의 일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2021년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까지 해외 곳곳에서도 '김치의 날'을 제정하고 있다.

매년 김치의 날 즈음 전국 곳곳에서 김치 박람회, 김장축제 등 김치 관련 행사가 열리고 있다. 광주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광주김치축제'를 시작으로



▲2025 대한민국 김치대전 포스터

김장철과 김치의 날을 알렸다. 광주광역시 주최한 '광주김치축제'에는 사흘간 무려 5만 7,000여 명의 방문객이 몰렸고, 10억 3,8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축제에 유명 가수는 없었지만 ▲천인의 밥상 ▲김치마켓 ▲푸드쇼 등 대표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내실 있는

콘텐츠로 구성,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참여 확대, 문화누리카드 사용 등으로 실질적 경제효과를 창출했다고 전했다. 광주 북구와 남구 등 지자체에서도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직접 담근 김치를 나눴으며, 광주신세계와 하이트진로 등 여러 기업들도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지난달 22일 김치의 날에 개최한 '대한민국 김치대전'에는 1122명의 시민이 모여 1만 포기의 김장을 했으며, 이 김치는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행사를 주최한 광주MBC가 생방송으로 현장을 송출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연말을 맞아 보람찬 일손을 보탬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

또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광주김치타운에서 '2025년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을 개최한다. 김장대전에 사용될 재료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생산된 배추, 고춧가루, 멸치액젓, 소금 등을 공동 구매해 제공되며, 세계김치연구소와 대통령상 수상자가 공동 개발한 레시피로 김치를 담근다.

한편,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김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값싼 수입산 김치와의 가격 경쟁 대신 가치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김치는 그저 식품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따뜻한 정과 마음을 나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기에 K-컬처 열풍에 이은 K-김치의 세계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지인 기자

parkjiin313@naver.com

지금 우리 학교는

변화의 씨앗을 심는 '선거'의 무게

캠퍼스에 활기가 넘치는 계절이다. 학생회 선거철이 다가오며 총학생회부터 단과대학 학생회까지, 다양한 후보자들이 각자의 비전과 공약을 들고 학우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시기는 단순히 '누구를 뽑을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우리 학교의 미래를 우리가 직접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

현재 많은 대학에서 총학생회나 단과대 학생회 선거가 단일 후보로 치러지는 경향이 있다. 경쟁이 없다는 점이 무관심으로 이어져, 투표율이 저조해지는 악순환을 낳기도 한다. 그러나 단일 후보라 할지라도, 우리의 투표권 행사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견제와 동력이 된다.

투표는 후보자들에게 학우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책임감을 부여하며, 나아가 '이 공약들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약속이다'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한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학생회는 더 큰 정당성을 가지고 학교 당국과 협상할 수 있으며, 학생 사회의 목소리를 더욱 힘 있게 대변할 수 있다.

학생회가 공약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생회만의 노력



▲선거용 투표함

으로는 부족하다. 학교와 협의, 예산 확보, 그리고 무엇보다 학우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회가 공약 실현을 위해 노력할 때, 학우들은 시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학칙 개정을 위한 간담회 등과 같이 특정 공약이 진행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 및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결국 학생회는 학우들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며, 학우들은 그 조직의 주인이다. 우리의 '한 표'는 학생회에 대한 기대와 책임을 위임

하는 행위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견제는 그 책임을 완수하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자치 활동이다.

학생이 학생회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던진 한 표가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학우들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대학이 변화하는 진정한 시작점이다.

조수민 기자

josumin0408@naver.com

영화 추천

편지를 따라 펼쳐지는 따뜻한 이야기 '연의 편지'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이 국내 관객들의 눈길을 끌며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는 가운데, 의미 있는 한국 애니메이션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5년 반의 제작 기간 끝에 완성된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연의 편지'다. 이 작품은 지난 10월 1일 개봉 이후, 관객과 평단 모두의 호평을 이끌어 한국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영화 '연의 편지'는 전학생 '소리'가 전학 온 첫날, 책상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한 편지 한 통을 따라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며 남겨진 다른 편지들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화는 화려한 액션 대신 일상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분위기를 섬세하게 표현해 '연의 편지'만의 한국적인 감성을 보여준다. 특히 무궁화호 기차나 학교에서 쓰던 독서 카드 등 한국 학생이라면 한 번쯤 경험했을 만한 요소들이 세심하게 담겨 있어, 관객들에게 자연스러운 공감을 불러오는 것이 특징이다. 또 학교나 시골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배경 미술 덕분에 영화의 몰입감이 높다는 점과 따뜻한 색감과 부드러운 작화



▲영화 '연의 편지' 스틸컷
(출처: 롯데엔터테인먼트)

가 어우러진 장면들이 인상 깊다는 것이 장점이다.

작품성 또한 국내외에서 인정받았다.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 최초의 한국 장편 개막작으로 선정되며 ▲심사위원장 ▲음악상 ▲기술상 등 3관왕에 올랐고, 오타와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OIAF) 등 다양한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기도 했다.

영화와 동일한 제목의 OST '연의 편지'는 작품의 따뜻한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다. OST의 잔잔한 울림과 함께 펼쳐지는 '연의 편지'의 이야기를 직접 경험해보길 바란다.

전국민 기자

jkjmkm0106@naver.com